

#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효과 좋아요”

광주시, 영세 자영업자 대상 금리 1%대 300억 지원  
음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종 등 올해 1943명 혜택

#1. 광주시 남구에서 지난 1999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통해 운영자금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를 새로 해 매출이 늘었다.

#2. 광산구에서 간판 제조업체를 하는 이모씨도 가게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6월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받아 자금공통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광주시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지원을 위해 1%대 금리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이 호응을 얻고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은 58개 업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 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3년 상환일 경우 3.4%, 5년 상환 3.6%다.

특히 광주시에서 1년 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와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업체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올해 자금은 11월 조기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총 1943명이 혜택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8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615명, 서비스업 374명, 기타업종 76명 등 순이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가 1432명으로 많았고 2000만원 초과~2500만원 이하 267명, 1000만원 이하 244명 등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가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골목상권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은행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의회 의원들 사랑의 연탄배달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북구 신안동에서 연탄배달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고점례 의장 등 의원 20명이 전원 참여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북구의회 제공>

## 북구, 두암보건지소 기능 확대 나선다

치매선별검사 등 서비스 ... 건강 상담 운동처방도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암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나선다.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지난 4일 두암보건지소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활동보조인 및 인근 주민들을 만나 건강취약계층 및 지역민들의 균등한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두암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에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치매선별검사, 고위험군관리 등 치매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혈압·혈당 측정서비스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운동처방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각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간호, 건강상담 및 기초검사 등 종합적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쳐나간다.

뇌병변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대학교,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활진료, 운동치료, 방문재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 밀착형 건강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문화·관광·의료·체육 등

### 다양한 교류로 공동 번영

#### 서구, 남북교류사업 조례 제정

광주시 서구에서 발의한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제화를 통해 협력사업 범위를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해 힘쓴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류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서구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물길을 트면 물고기가 찾아오고 나무를 심으면 새가 온다”는 말이 있듯,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물길을 터야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 추운겨울 ‘활활’

### 남구 청년·고교생·프로야구 선수 등 연탄 기증 1만4442장 쌓여

광주시 남구에서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쌓이고 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을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쌓인 사랑의 연탄은 1만4442장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26만원 상당 사랑의 연탄이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사랑 나눔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광주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포럼에서 대촌동과 월산4동 취약계층 세대를 돕기 위해 연탄 4700장(319만원)을 후원했다.

또 사랑의 희망 은행에서 연탄 2500장(170만원)을, 가야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챔피언스필드 장내 아나운서인 mc 이수, 제31 보병사단에서도 각각 1000장(80만원)의 연탄을 기부했다.

동성고와 동아여고 학생을 비롯해

피부 관리샵인 헤림뷰티에서 각각 2942장(200만원)과 700장(56만원), 1,000장(80만원)의 연탄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를 지켰다.

남구 16개동 주민들과 상인들도 이웃 사랑 실천 활동에 뜻을 보태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월 3만원 이상씩 후원하고 있는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한 모금액은 7527만원(11월 말 기준)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착한가게 235곳에서 6685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착한 가정 34곳에서도 1064만원 상당의 성금을 쾌척했다.

남구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올 한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도시락 배달, 김장김치 전달,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4회 실버페스티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공중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동구 ‘실버문화 페스티벌’ 어르신 400여명 즐거운 한마당

광주시 동구가 주최한 ‘제4회 실버문화 페스티벌’이 지난 5일 동명동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동아리 20개 팀 어르신 4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팀은 공중무용을 비롯해 국악, 스포츠댄스, 합창, 장구춤, 우리춤, 하모니카, 검도, 난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순금(72.여) 어

르신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생활도 즐기고 나날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실버동아리 어르신들 상호교류와 성취감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